

“증세” vs “감세” ... 여야 세금전쟁 시작됐다

정부 13개 세법개정안 확정
법인세·소득세 최대 쟁점
한국당 ‘서민 감세법’ 맞불
국민의당·바른정당 공조 관건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정치권의 ‘부자증세’ 논의가 불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다. 내국세와 관련하여는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발소비세법·국세조세조정법 관련 법률·증권거래세법·주세법 등 10개 법안이다. 여기에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관세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넘어온다.
일단 오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회로는 9월 1일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증세법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뒷받침할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인 데다,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시급성이 될 수 있는 만큼 여권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증세법안을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전개될 첫 ‘예산전쟁’ 무대에서 증세법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을 강력히 저지하고, 맞불 감세법안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득세 최고구간은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40%이지만, 정부는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40%와 '5억 원 초과'에 42%로 최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키

로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상황이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관철하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두 야당과의 공조가 핵심 관건이 됐다.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통

과하려면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증세 외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현행 7%에서 3%로 단계적 축소하는 문제와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도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

4野 정부 부동산 정책 맹폭

한국·바른정당 “盧 정책 재탕” ... 국민의당 “땀길 대책”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당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규제 완화와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국민의당도 ‘땀길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만 제일 크게 올려놓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저금리 기조에 의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철퇴를 기해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지의 의문”이라며 “결국 시장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노무현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

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책위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지난 10년간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라는 변화를 무시하고 시장 과열만 겨냥한 근시안적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근본적 대책이 없는 땀길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의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대책에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양제, 공공부담 분양권 공개,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도입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숙’ 하겠다던 安 당권 의지...술렁이는 국민의당

오늘 오전 입장 발표...출마 놓고 의견분분 당내 갈등 고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27일 열리는 전 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당이 술렁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일 저녁 당내 초선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한편 박지연 전 대표, 정동영·전정배 의원 등과 물 밑 접촉에 나선 뒤, 3일 오전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안 전 대표가 대표 경선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의당은 친안(친안철수)-비안(비안철수) 그룹, 호남과 비호남 그룹 간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안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를 만나 출마

를 만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대표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대표 출마를 접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날 저녁 만찬에 참석하는 초선 의원들 상당수가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을 만류할 가능성이 높는데다 박주선·박지연·김동철 의원 등 당내 지도부 및 중진 인사들도 그동안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 전 대표의 출마는 대표 당선 여부와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안 전 대표

의 출마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안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결국 갈등과 분당의 촉매제가 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의 대선평가위원회의 대선 평가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대표에 출마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제보 의혹 조작 사태나 과거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등으로 당에 결정적 타격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안철수 전 대표 측인데 대선 패배의 원인도 TV 토론 등에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개호·민형배 등 호남 정치인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민형배(광산구정장, 유근기 곡성군수, 김종식 광주시 부시장) 등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에 금호타이어와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운영 중인 기업을 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일자리 정부’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해외매각 반대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국 업체(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기술력만 흡수한 뒤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금호타이어 5000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리점 종사자까지 수 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산업은행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조선업에는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면서 금호타이어는 해외매각에 부실매각하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재판단은 새로운 국내 업체 인수를 물색하거나 해외매각이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북구, 삼각동 대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 209, 209-1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대지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 매매 36억
- 온천지구 내 “직업 테마 파크” 등 600억 투자 예정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